

양상문 감독 "선수들의 집중력, 경기 가져왔다"

등록 2019.07.09 22:20:40



【서울=뉴스시스】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. (사진= 롯데 자이언츠 제공)

【부산=뉴스시스】김주희 기자 = 롯데 자이언츠가 길었던 6연패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. 양상문 롯데 감독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선수들을 칭찬했다.

롯데는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4-1로 이겼다.

올 시즌 투타 난조 속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, 모처럼 마운드와 타선이 모두 힘을 발휘했다.

선발 서준원은 5⅓이닝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제 몫을 해냈다. 타선이 늦게 터지면서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, 서준원이 버티면서 승리에 발판을 놓을 수 있었다.

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펄펄 날았다. 4회 대주자로 투입된 조홍석은 8회 결승타를 때려내는 등 2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다. 대타로 나선 민병현도 2타수 1안타 1타점을 수확했다.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강로한은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멀티 히트를 작성했다.

뒤틀림이 발휘됐다. 1-1로 맞선 8회말 3점을 빼앗아 흐름을 끌고 왔다. 1사 1, 2루에서 조홍석의 1타점 2루타로 리드를 잡았고, 오윤석이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보탤었다. 강로한이 1타점 2루타를 치며 4-1로 도망갔다.

양상문 감독은 경기 후 "박빙의 승부였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준원의 안정적인 피칭이 있었기 때문이다"고 평했다. 이어 "어려운 경기였는데, 후반 찬스에서 조홍석, 강로한의 좋은 타구와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를 가져왔다. 좋은 기운을 이어

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"고 말했다.

후반 찬스를 살려 결승타를 날린 조홍석은 "오늘 한 번쯤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, 2군에서 상대를 많이 해보고 변화구 구사가 좋은 투수(김건태)가 나와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간 것이 잘 맞았다. 내 안타가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돼 기분 좋다"며 활짝 웃었다. "앞으로 팀에 더욱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"고 각오를 다졌다.

juhe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